

# 거리로 나선 하레딴<sup>1</sup>

## 아셰르 인트레이터

6월 17일 목요일 오후, 예루살렘의 10만 명, 텔 아비브(브네이 바락<sup>2</sup>)의 5만 명의 초정통파 유대교인들이 놀라운 동원력을 자랑하며 시위 행진을 벌였습니다. 이스라엘 대법원은 ‘임마누엘’ 정착촌의 종교 학교가 스파라디 학생들에 대한 인종 차별을 했다고 판결했습니다. 학교와 학부모들이 상황을 시정하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그들은 법정 모욕죄가 부과되었습니다. 학부모들은 목요일을 시작으로 14일 징역을 선고 받았습니다.

초정통파는 자신들에 대한 대법원의 관할권에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사실 이 학부모들이 ‘믿음을 인해’ 투옥되었다는 사실에 기쁨으로 반응했습니다. 초정통파는 ‘내 기름 부은 자를 만지지 말라,’ ‘하늘 나라를 위한 순교자들,’ ‘대법원이 아닌 토라가 우리의 권위’라고 쓰여진, 그들에게 가장 축제스러운 검은 옷들을 입고 거리로 향했습니다.

초정통파들이 토라라고 하는 것은 성경, 혹은 모세의 율법이 아닌 그들만의 랍비적 권위입니다. 대법원과 초정통파 간의 이러한 충돌은 종교인과 세속인 간의 사상 가장 광범위한 분열을 보여줍니다. 한 히브리 신문은 이번 사건을 ‘유다’와 ‘이스라엘’ 간의 내전이라고 불렀습니다. [종교인들은 자신들을 이스라엘 국가의 국민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유대인’과 ‘유대교’에 연관시키기를 좋아합니다. 반면 세속인들은 반대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시위 행진에서 초정통파가 주장하는 바는 종교-국가 관계를 괴상하고 안타깝게 왜곡시켰습니다. 이 질문은 예슈아 당시에 주님께서 초정통파에게 받으셨던 질문을 떠올리게 합니다. “당신은 가이사<sup>3</sup>에게 세금을 내는가?” 이에 예슈아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가이사에게 속한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께 속한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마 22:21).”

이스라엘 대중의 주류는 한 편으로는 극단적 무신론과 쾌락주의, 세속주의에 빠져 있으며 또 한 편으로는 극단적 율법주의, 교묘한 종교성에 취해 있습니다. 극단적 세속인들과 극단적 종교인들 모두 세계관의 저변에 ‘반시온주의’가 깔려 있다는 사실이 흥미롭습니다.

## 2010년 티쿤 미주 컨퍼런스

### 트로이 월레스<sup>4</sup>

티쿤 미주 컨퍼런스는 1년에 한 번씩 메시아닉 유대인 및 이방인 성도들이 모여 이스라엘 및 전세계의 메시아의 몸을 이끌어 가는 지도자들에게 말씀을 전수 받는 시간입니다. 올해 저희는 댄 저스터, 아셰르 인트레이터, 에이탄 쉬쉬코프, 폴 윌버, 잭 헤이포드 등을 모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한 주를 보내면서, 이 시대 가운데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욘 2)’로 향하며 ‘시기<sup>5</sup>의 변화’가 생기고 있음을 분명히 보게 되었습니다. 댄은 지도자들이 언약적으로 굳게 헌신된 공동체들을 세울 목적을 가지고, 다가올 날들 가운데 서로를 지탱해 줄 공동의 믿음과 사랑을 이루자고 격려했습니다. 에이탄은 낙심을

---

<sup>1</sup> 흔히 ‘초정통파(ultra-orthodox)’라고 하는 가장 보수적인 유대교인들

<sup>2</sup> Bnei Barak

<sup>3</sup> Caesar

<sup>4</sup> Troy Wallace

<sup>5</sup> season

떨쳐 버리고 과거의 실패와 좌절을 딛고 믿음에 굳게 서기를 권고했습니다. 폴은 점점 더 어둠이 기승을 부리는 때이지만, 주님의 빛이 세계를, 심지어 쿠웨이트와 두바이 같은 이슬람 국가들도 계속해서 비출 것이라고 용기를 주었습니다. 아세르는 우리 마음이 현재의 지정학적 정세를 넘어 ‘성경적 균형’<sup>6</sup>에 대해 각성되기를 기도했습니다. 잭 헤이포드는 주님께서 우리를,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나, 이끄시는 시나리오가 우리의 이상(理想)보다 안 좋아 보일지라도 주님을 따르자는 비전을 전했습니다.

저희가 성회로 모였을 때 대두된 또 다른 이야기는, 관계의 가치와 역사를 성찰하는 일의 중요성이었습니다. 이번 컨퍼런스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아세르, 댄, 에이탄, 그리고 폴이 모두 함께 모여 미주의 지체들과 시간을 보낸 집회였습니다. 이 네 사람은 30년 가까이 이어온 관계를 토대로, 지속적으로 국제 티쿰의 모든 일들을 이끌어갈 것입니다. 각자가 개인과 사역 단체의 역사를 돌아보는 귀중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모두 ‘예슈아의 증거는 예언의 영 (계 19:10)’임을 기억합시다.

## 구름과 만나

**하나님의 초자연적 인도와 공급은 우리 삶 가운데서도 약속의 땅에 이르도록 도울 것입니다.**

### 에디 산토로

이번 달의 토라 할당은, 민수기에서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나는 부분입니다. 자연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해 봐도 불가능한 상황이었지만, 그들의 여정의 성패는 자연적인 것이 아닌 초자연적인 요인에 달린 것이었습니다.

그들 앞에는 낮에는 놀라운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서 있었으며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 친히 거하시며 임재를 보이셨습니다. 그 구름이 움직이면 이스라엘도 따라갔습니다. 40년이나 걸렸지만, 무한한 사랑으로 충만한 그 임재는 그들의 발길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동일한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필요 또한 공급해주셨습니다. 그들의 가족 신은 헤어지지 않았고, 바위에서 물이 흘러 나왔으며 하늘에서 만나가 공급되었습니다.

며칠 전 기도하던 중, 주님께서 신약 성도인 우리들의 상황이 그 오래 전 이스라엘과 얼마나 닮았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목표해야 하는 ‘약속의 땅’이 있지만, 어떻게 갈지는 모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자연계에서 우리가 소유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위대한 소명을 성취하는 데에는 턱없이 부족하기만 합니다.

그렇지만 예슈아 안에서, 우리는 우리를 인도하는 구름을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최종 목적지를 우리 마음 가운데 두셨을 뿐 아니라, 한걸음 한걸음을 신실하게 이끄십니다. 그리고 자연적으로 우리는 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의 능력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생명 그 자체를 우리 안에 두셨고, 그를 통해 우리는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